

코로나19 여행객 발생 확산 불안

수도권 확진자 주말 사이 제주방문...감염 우려 고조
 다른 지역 방문 후 확진도 "유증상자 검사 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타 지역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타지역 거주자들이 확진 전 제주를 방문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지난 19일 하루 사이 타 지역 거주 및 방문 이력이 있는 64·65번째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한데 이어 주말 사이 서울·경기도 확진자가 확진 전 제주를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역학조사를 진행해 방문지·접촉자 파악 및 방역 소독 조치, 동선

공개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19일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64번 확진자 A씨, 65번 확진자 B씨, 제주 여행 후 20일 서울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C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날 추가로 경기도 소재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D씨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64번 확진자 A씨는 서울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현재 제주의료원 음압병실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65번 확진자 B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모 국제학교 재학생이다. B씨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서울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

B씨는 입도 후 국제학교와 기숙사 내에 머물러 왔으며, 최종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학교 외 외출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해당 국제학교 내 집단 감염 발생을 차단하고 도민 불안감 완화를 위해 지난 20일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총 265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제학교와 관련해 추가 전파는 없다고 전했다.

C씨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뒤 지난 20일 서울지역에서 검체 채취, 당일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스다. 이와함께 도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뒤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 거주자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동선 1곳을 공개했다.

한편 도는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타 지역 방문자 중 유증상자에 한해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해 타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과 입도객들은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일 경우 도내 6개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오은지기자



제주 출신으로 첫 천주교 제주교구장에 착좌한 문창우 주교가 22일 교구장으로 취임해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약하고 가난한 이웃 향해 나아갑시다”

제주 출신 첫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 어제 착좌식
 “오늘날 겪는 십자가의 길 아파하는 제주를 위로해야”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하고, 짓밟히고, 억울하게 고통당한 이웃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고 말합니다.” 22일 천주교 제주교구 5대 교구장으로 착좌한 문창우 주교는 첫 강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 삼위일체 대성당에서 열린 신임 교구장 착좌식은 코로나19로 참석 인원이 제한됐다. 한국천주교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 김희중 대주교, 3대 제주교구장을 지낸 김강렬 주교를 비롯 전국 교구의 사제, 신자 등이 참석해 제주출신 첫 교구장의 탄생을 축하했다.

착좌 예식 전 주한 교황 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우리말로 이·취임 교구장에게 바램을 전했다. 이임하는 강우일 주교에게는 “사랑하는 베드로 주교님, 당신은 여전히 강한 분입니다. 평화를 위해 계속 일해 주세요”라고 했고, 취임하는 문창우 교구장에게 “사랑하는 비오 주교님,

당신은 젊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양떼를 돌보아 주세요”라고 말했다. 문창우 교구장은 강우일 주교의 안내를 받으며 주교좌에 앉았다. 문 주교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란 사목 표어가 적힌 주교 문장을 설명한 뒤 교구장으로서 처음 강론을 펼쳤다.

문 교구장은 “오늘은 교회의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맞고 있다. 그분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장 작은 이들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했다”면서 신축교안, 제주4·3, 강정해군기지, 제주2공항 등 제주도민들이

겪어온 ‘십자가의 길’을 언급했다. 문 주교는 “오늘날 제주를 전국 최고의 관광개 숫자를 돌파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아파하는 제주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인의 상처를 위로하고 공감하려는 것이 신약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착좌식은 다음 세대를 향한 제주교구의 의지를 보여주듯 청소년들이 말씀전례 독서자로 참여했고 청년밴드가 축가를 불렀다. 동백꽃, 해녀 태극, 돌고래상, 조랑말상, 제주 등대상 등 제주문화와 자연을 담은 상징물을 봉헌하는 순서도 있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오늘부터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사 본격

도의회 상임위별 진행... 조직개편안 처리도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가 올해보다 70억원 늘어난 5조8299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과 1조1699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지난 16일부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 제주도의의회는 지난 20일까지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고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을 비롯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관광, 문화예술, 1차산업 등 분야별 대응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부터 3525억원

의 지방재 발행계획과 출연금 및 대행사업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통해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합리적인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졌는지부터 원희룡 도지사의 ‘대권 도전 예산’과 방만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앞서 좌남수 의장은 지난 16일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고

강도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제주도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이 경제활력 의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손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제주도가 지난 7월 의회에 제출했지만 계류중인 ‘민선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2009년 이후 11년만에 조직 및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을 안전교통실로 통합하고, 지방공무원 총수를 20명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2020 JDC와 함께하는

청소년 캠프 4회 참가자 모집

한리일보는 JDC와 함께 올해 제주의 환경과 문화분야 현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 제고를 위한 ‘청소년 캠프’를 총 4회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11월 29일 (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대상: 도내 초·중·고·대학생

▶ 모집 인원: 12명 (선착순 마감), 참가비 무료

▶ 신청 기간: 11월 23일 ~ 26일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brihthh@naver.com)
 ※ 서식-이름/학교/학년/연락처 기입
 ※ 신청순 접수인만큼 접수 후 꼭 확인 전화 요망

▶ 교육 내용: 제주의 문화재 지킴이 주제 기사 탐색 및 보드게임 만들기

▶ 문의: 010-4369-3011

I·SEOUL·U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제주도와 함께합니다

지역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역이 함께 살어나도록 서울시가 방법을 찾습니다

• 3대 분야 • 9개 추진과제 • 39개 상생사업 추진 중

서울-지역 상생사업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서울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기획행정 → 대외협력

사람

- 공무원 인사교류
- 귀농귀촌 지원
- 농촌일자리 지원
- 농촌체험교실
- 문화·예술공연 교류 확대
- 박물관·미술관 전시 교류 확대
- 서울농장
- 서울시 공무원 교육과정 지방공무원 개방
- 서울자원 지역청년 개방
- 서울-지방 청년교류 공간 운영
- 지역청년 혁신체험 학점인정프로그램
- 지역 연계 일자리 창출
- 지역정보 교류공간 상생플랫폼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 청년농부, 서울을 누비다
- 청년 지역교류 지원
-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 학교밖 청소년 산촌유학 및 대안학교 교류

정보

-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서울정책연구소 프로그램
- 서울-타 지자체간 MICE 공동마케팅
- 마을과 마을 상생공동체 MOU 체결 지원
- 상생 관광패스
- 온라인 서울국제트래블마트
-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
- 지자체간 다자간 MOU 활성화
- 지역상생 홍보관
- 찾아가는 혁신로드
- K-트래블버스
- 혁신기술 지역 공유

물자

- 김장문화제
- 과잉공급, 피해농산물 상생 판로 시스템 구축
- 공공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운영
- 농부의 시장
- 농업공화국 지역별 코너 운영
- 도농상생 공공급식
- 상생상회
- 지방매교 활용 자연체험 캠핑장
- 지역-전통시장 상호협력 공동마케팅